

호기심과 은유의 마을

Village with the curiosity and metaphor

대담자 / 송인호 (서울시립대 교수)

일 시 / 1996년 12월 18일 오전

장 소 /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좌 : 김영섭, 우 : 송인호)

건축가 김영섭과 비평을 쓰기로 한 건축가 최욱과 함께 용문수련원을 보고, 남한강을 따라 서울로 돌아 오는 길에, 문득 시에나의 화가 시모네 마르띠니(Simone Martini, 1284~1344)의 '귀도리치오 다 플로리아노(Guidoriccio da Fogliano)'라는 프레스코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사람 모두 이탈리아에 이런 저런 향수와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라, 각자 자기 감상에 젖어 이탈리아의 이 도시 저 도시에 대하여 기억을 되새김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설계사무소 건축문화에서 대담이 있었다. 용문수련원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듯하여, 이탈리아 시에나, 시청 이층 홀의 벽에 그려져있는 그 그림을 앞에 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송인호 시모네 마르띠니의 이 그림에서, 말을 타고 가는 귀도리치오 장군의 모습도 좋지만, 그 배경이 되는 산위의 마을들이 인상적입니다.

김영섭 유연하게 이 그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검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진 산성도시와 그곳으로 오르는 길 때문에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검고 푸른 색은 시에나 화가들이 즐겨쓰던 독특한 색깔인데, 용문수련원에서 배경이 되는 뒤편 검은 숲을 보면서 그 그림을 연상하였습니다. 검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탑이 올라있는 풍경 때문이었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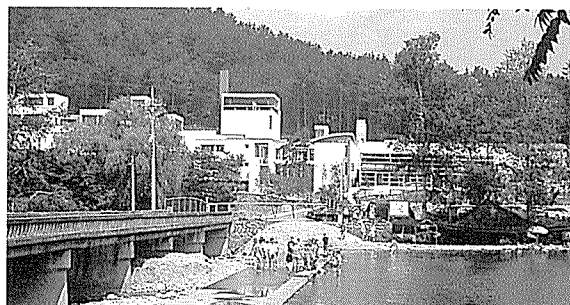
그림이라는 것이 화가에 의하여 재해석되어진, 즉 프레임틀 속에 담겨진 자연이지요. 그것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라는 평면에 압축되어있는 의미를 음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중세나 르네상스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항상 주제도 주제이지만 그 너머의 배경에 관심을 갖지요. 주제 인물들의 배경에는 항상 길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상실한 사람의 마음',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는 꿈이, 마을과 마을로 가는 길로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감성은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산성도시의 형태적 이미지,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 그 두가지 이미지가 중첩된 그림이어서 그날 시모네 마르띠니의 그림을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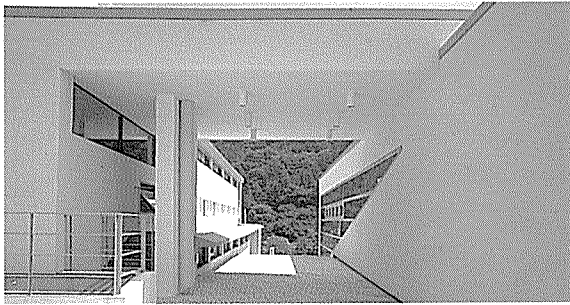
송인호 산성도시는 그 위에 깃발이 날리고있는 높은 성루가 있고, 붉은 경사지붕을 한 집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용문수련원도 서로 다른 형태의 작은 건물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김영섭 이것이 결코 단일 건물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자연의 스케일에 맞서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도 비롯되었지만, 그에 앞서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공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와 채를 나누어 그 사이에 마당을 두고, 레벨 차이를 두어 오르고 내리고, 다리를 건너며 내려다 보고 하는 것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공간구성에 대한 재미를 체험하도록하고, 공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획일적 형태의 도시 아파트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에게, 마을이 갖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일상과 축제의 기능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도시라는 것이 너무나 기능 위주의 구성이어서, 이곳은 사는 곳이고, 이곳은 쇼핑센터이고,



전경



진입계단을 올라와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 봄

이곳은 놀이터이고, 이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나누어져 버렸죠. 그런데 삶이란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을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일상속에 담기는 구조였지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간경험을 통하여 고향의 이미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을과 길이라는 주제는 시모네 마르티니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에서와 같이 '고향을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첫번째 대화의 주제는 마을이다. 마을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낼 때는 사실 집들이 모여 있음, 곧 집합이라는 물리적인 형상에 대한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건축가 김영섭은 그 대답 대신, 계속 '고향상실' 또는 '공간의 체형'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그에게 '마을과 길'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건축어휘나 구성방식이라기보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송인호 수련원 뒤편의 완만한 능선이 아름답습니다. 산자락을 휘감아가는 강물과 건너편의 가파른 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첩첩이 겹쳐지는 능선의 실루엣, 풍광이 좋습니다. 평소에 자연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십니까?

김영섭 도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의 흔적들을 유추해서 그것을 기억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적인 문제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작업할 때는 그 시간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인 사실로 들어 옵니다. 오래된 나무나 마모된 바위라든가, 또 산 끝자락을 휘감아가는 물줄기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의 퇴적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연의 상태로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엄숙한 현실이지요. 우선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게 제가 당선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하는가' 하고 질문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기까지 기다려, 그 대답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그 대지에 가서 생각하라'라는 말이 중요한 교훈을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대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기의 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자연에 교묘하게 얹힐 수 있을가를 고민하고, 꾀를 내기위해 애쓰지요. 저는 자연에 마주하여 작업을 할 때 만큼은, 그러한 영리함이나 꾀 보다는 자연이 이야기 해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다루어야하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룰 때는 마치 처녀를 다루는 것과 같은 조심스러움과 경건함, 그리고 순수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연은 도전해야 하는 대상이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옛 선인들의 생각과 같이 순응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자연이 이야기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인호 자연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경건함을 더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대지에서 그 자연이 선생님께 말해준 것은 무엇인지요. 지형과 경치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섭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우선 검은 숲을 배경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얀 건물들의 군상이었으면 좋겠다, 산세에 맞추어 커를 이루면서 중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총론적으로는 이 곳의 포토그라피, 곧 지형을 가능한 한 건드리지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순응이라는 명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형에 자칫 잘못 손을 대면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절토량 때문이지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가능한한 지형을 유지하면서, 마치 포크레인으로 땅을 긁어내듯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레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기초를 했을 때는 제 자신도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포토그라피를 포함하여, 수없이 중첩된 면에 대한 입체적인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땅 위에 구성되는 건축적인 공간 뿐 아니라, 땅 아래의 채워져 있는 땅덩어리에 대해서까지도 더불어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절감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송인호 자연에 손을 대어 마을을 만들어갈 때, 건물을 작은 단위로 분절하여 구성하셨습니다. 건물

을 분절하면 그 사이에 마당이 생기고 또 자연이 끼어들게 됩니다. 분절된 채와 그 사이의 외부공간은 짝을 이루는 개념이겠지요.

김영섭 _____ 사실 마당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근래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 토스카나의 산성도 시들을 여행할 때나, 우리의 전통건축을 답사할 때 그저 지나가면서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계동으로 이사와서 한옥에 살면서 문득, 마당이라는 것이 이 체에서 저 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리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당은 그저 비워져 있는 외부공간이 아니라, 두 체 사이의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당의 깊이와 비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저쪽을 바라보면 왜 그윽하게 보이는가, 뒤쪽 문을 열어 놓고 대청에 앉았을 때, 뒤뜰의 대나무가 바람에 휘익 소리를 내면, 조금 뒤에 그 바람이 대청을 지나서, 안마당의 능소화가 후루룩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앞 뒤의 마당이 마치 화성처럼 울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의 중심에 서서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이쪽에서 마당 너머 저쪽을 바라보거나,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은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하고, 주위의 건물에 대해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당이 비어있을 뿐 아니라, 살아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흐르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마당은 독립되어 있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레벨 차이가 나면서 서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직은 마당이 비어있는듯 보이지만, 예산이 마련되면 앞으로 마당에 테라코타로 만든 큰 항아리를 놓고 일년생 화초를 심으면, 분위기는 훨씬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송인호 _____ 서양의 중정과 우리의 마당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에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서양의 것이 블럭에서 중심 부분을 비워낸 것이라면, 우리의 것은 마당을 중심으로 채들이 에워싸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보다 의미있게 느껴집니다만.

김영섭 _____ 서양의 중정이 바라보기 위한 것에 가깝다면, 우리의 마당의 개념은 바라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행위들이 담길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당에는 반드시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그 공간은 죽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는 숨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구나 출구가 한 눈에 그냥 보여지기 보다는, 어디에서 획 돌아 들어온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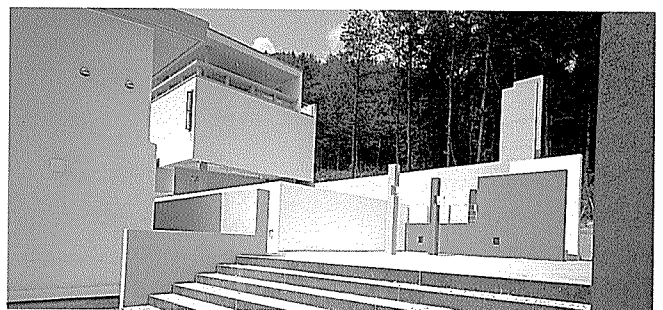
서, 항상 기대와 새로운 부딪침이 있을 때, 마당의 생명력이 지속된다고 봅니다. 마당으로 어떻게 진입하는가, 마당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는 것이, 마당의 비례와 깊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굳이 마당을 두어야 하는가. 외벽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더 들고, 열손실이 많아지고, 동선도 길어지는데 왜 마당을 고집하는가. 사실 대답이 궁색해지지요. 마당은 만들어 놓고나면 실용적이지만,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실용적으로 느껴진다 말이지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아예 건축주에게 이 집의 개념은 '마당과 길' 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마당에 대한 그의 생각은 건강하고 실감있다. 한옥에 사는 사람으로써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마당을 멈추어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생활이 담기는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그의 용문수련원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것은 비평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마을의 공간구성에 대한 건축가의 구상을 더 들여보자.

송인호 _____ 이 마을은 얽혀 있는 미로와 마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흰 벽과 좁은 길과 계단들은 마치 지중해의 섬마을과도 같은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공간구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_____ 먼 길을 온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서, 줄을 지어 다시 좁은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이 대성당입니다. 학생들은 제일 먼저 이 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우선은 시원하다는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그저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무심히 보았던 자연이 커다란 유리창에 가득 보일 때, 학생들은 어딘가 근사한 곳에 왔구나하고 느끼게 되지요. 오줌이 마려우면 다시 좁은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화장실로 가게 되는데, 미로와 같은 길을 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아외집회장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 계단을 올라서면 수련장 주요길이 펼쳐진다.



아외극장 입구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호기심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빠지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호기심을 예술적으로 잘 해석해서, 그위에 은유를 덧입히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잘 정제된

장자인데,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상자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와는 또 전혀 다른 사건이 전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공간을 재미있어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을 만나게되면, 그 건물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또 다른 한 그룹이 들어 온다면, 아외극장으로 인도되어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이 곳은 아외에배나 영화감상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강당과는 대조적인 공간이지요. 강당이 내부이지만 시야가 열려있다면, 이 곳은 외부이지만 시야는 닫혀 있지요. 바깥이면서 안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강당 또는 아외극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들은 각각 A숙소동과 B숙소동으로 배정됩니다. 두 그룹은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순서의 공간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저는 이처럼 건축가가 마치 모노로그를 풀어 나가듯이, 공간과 장면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여름 뿐 아니라, 재잘거리며 떠들던 아이들이 떠나고 난 뒤의 시간에 대해서도, 낙엽이 흩뿌려져 있는 아외계단의 가을 이라든지, 눈이 쌓여있는 밤의 시간이나, 또는 은퇴한 노사제가 그림자를 끌며 거니는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마을이 아니라 영화세트장을 만들 어버릴 위험이 있지요.

건축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마을이 영화세트장, 또는 그저 세련된 형태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연출, 호기심, 생명력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통로를 따라 이 마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젊어서부터 혼자서 계획없이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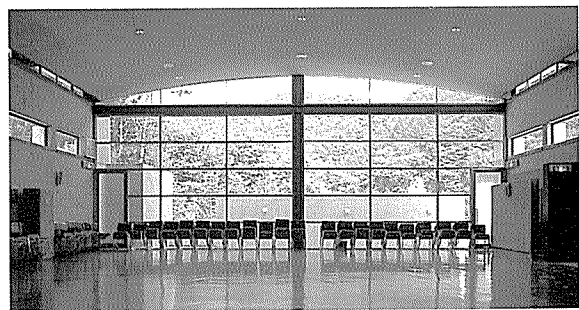
슨하게 여행하기를 즐겼는데, 그 여행들에서 그는 일상과 건물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인상들을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마치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리듯, 그 장면들은 꼬집어내어 구성하고 있노라고 설명하였다.

송인호 외람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치된 형태를 보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교 좌표 체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지형의 미세한 차이를 따라서, 또는 좋은 경치를 향해서 조금씩 틀어 앉을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마을들이 갖는 공간구성처럼 말입니다.

김영섭 저는 도시에 지어지는 건축과 자연에 지어지는 건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컨텍스트에 따라, 사선이나 원호, 부정형 형태들이 도시의 경직된 질서를 깨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의 퇴적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자연곡선들이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자연과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면, 자칫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고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풀어나갈 만한 능력이 세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연에 대하여는 모범생처럼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자연과 잘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앞에서는 자유곡선이라든가 사선을 쓴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저는 안도의 건축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자연에 대하여 확실하게 대조되는 인공적인 어휘를 쓰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작업했던 정릉의 수녀원도 매우 복잡한 평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혀 자유곡선이나 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엄격한 선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나무가 추상화되는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자연적인 모습의 나무가 몇 단계를 거쳐서 분절된 기하학적 선들로 미분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자연이 추상화되는가,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



성당내부, 눈앞에 펼쳐지는 대자연을 물리적장치의 스크린을 두어 걸어보게 된다.

디서부터 인공인가. 자연도 이렇게 완전히 추상화되어 버릴 수 있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이 용문수련원의 배치도를 질 나쁜 복사기로 여러번 복사하다 보면 그 몬드리안 그림과 같이 될 겁니다.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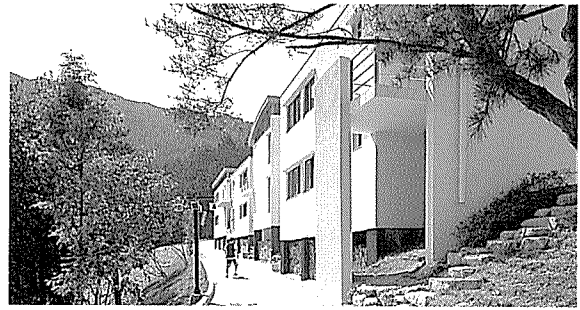
건축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축구성 요소는 단순한 형태라 하여도 그것이 배치되는 방식은 조금씩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에 있는 우리 옛 절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절과 다른 모습은 그러한 구성방식이 아닌 단가. 전각들은 얼핏 좌교 좌표 위에 구성이 된 듯 하지만, 지형에 따라, 바라보는 산에 따라, 또는 진입하는 각도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앞에서 질문했던 산자락을 휘감아 가는 강물과 건너편의 가파른 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첩첩이 겹쳐지는 능선의 실루엣, 이러한 경관들이 조금씩 흐트러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대지 입구쪽 다리에 서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배치도에 보이는 긴 원호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작게 분절된 건물들을 다시 묶어주는 건축적 장치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원래 계획에는 앞쪽에 낮은 기단과 같이 긴 경사로를 계획했었다고 한다. 그랬으면 건물들이 대지와 좀 더 밀착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열지어 서있던 뽕나무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설계를 조정했다고 한다. 지금 그 나무들은 없는데 그 나무들이 남아 있었다면, 건물 앞에 한 커가 더 생기는 셈이니, 검은 숲을 배경으로 건물들이 더욱 깊이감 있게 보일 듯하다.

송인호 마을 안을 걷다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장면으로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지요.

김영섭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 읽히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를 때, 사람들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됩니다. 건축도 그러한 연출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눈에 다 읽혀지는 건물이 아니라, 호기심과 은유로 가득한 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들이어서, 건물 사이사이에 구성된 장면과 토막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곳이 전망대입니다. 이 곳은 지붕이 덮힌 옥상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그룹의 교육장으로도 이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전체를 내려다 볼 수도 있고, 들어오는 길과 주변의 산들을 둘러볼 수 있는 장소이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바라보았을 때, 햇



대지 앞쪽 외부 길에서 수련장 전면을 봄

빛이 강한 한 낮에 보는 자연은 눈부심, 그냥 빛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명이나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에 바라보는 자연은 중첩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건축에 자연을 끌어들이려할 때 빛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감과 그림자를 가지고 빛을 연출하려면 채와 채의 분할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하나의 건물로 했더라면, 자연과 건축이 서로 관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때 건물의 형태 뿐 아니라 질감과 색도 장면을 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재료를 붉은 벽돌로 처리했었다면, 긴 벽이나 매스를 따라서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서, 긴장감이 훨씬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연을 건축에 담으려할 때, 근경을 취하는 것은, 도시에서처럼 어느 정도 풍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문수련원에서와 같이 근경과 원경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건축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채와 채 사이로 분절되어 보이는 경치가 원경이라면, 성당에서 바라보는 맞은 편 산은 일종의 중근경인 셈입니다. 원호화된 프레임 안에 풍경이 가득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창 밖의 낮은 콘크리트 담은 근경을 지우고 그 너머 중근경만을 취하도록 현장에서 그 높이를 조절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전통건축에서 너무 높지 않게 담을 치고, 그 너머로 자연을 취하는 방식에서 배운 것이지요. 그 수법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거리감을 분명하게 주고, 조정된 스케일에 따라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로 사제실에서는 마치 내가 자연 안에 나가 앉은 것과 같은 느낌이기를 바랬습니다. 근경을 취하는 방식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장면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곳이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는 천정면으로 하늘을 꿰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큰 그림처럼 보이도록 처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마을 안에 구성된 장면들은 카메라를 통하여 보는 파인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채와 채 사이로 보는 원경은 마치 망원렌즈처럼 카메라의 렌즈를 줄여서 장면 장면 자연을 잡는 수법이지요. 한편 성당 안에서 바라보는 중근경은 광각렌즈를 활짝 열어서 잡은 장면이지요. 창에 앞산이 가득 들어오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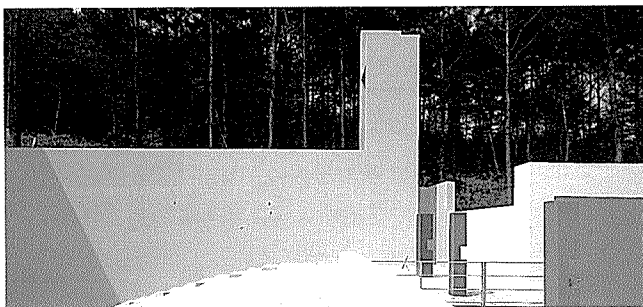
사제관 안에서는 마치 내가 숲에 나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크게 펼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와같이 근경과 원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소위 영화적인 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는 어떠한 렌즈를 쓸 것인가, 어떠한 각도로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듯이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경은 다리에서 이 마을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직적인 전망대라든가, 몇 개의 가리개 벽들을 수평적인 건물들 위에 랜드마크와 같은 요소로 분절시켜서 구성하였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는 장면들이 건물 형태에 의하여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대화 중에 나는 야외집회장 옆 경사로를 오르면서 바라보는 장면과, 전망대에서 서서 둘러보는 풍경이 꼭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플러스 잡지(9609)의 표지사진에서 보듯이, 낮은 곳에서 경사로 따라 오르면서 보는 숲은 마치 퍼스펙티브처럼, 깊이 방향으로 보인다. 자연을 향하여 그 높이가 줄어드는 청색 청회색 벽이 시선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한편 높은 전망대에서 서서 둘러보는 앞산과 들은 파노라믹하게 펼쳐진 장면들이다. 긴 벽 대신에 깊은 천정면이 시선을 조정하고 있다. 각각 대조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는, 벽과 천정면의 역할이 흥미롭다.

송인호 흰색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색들을 사용하였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색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외부에 쓰인 색과 내부에 쓰인 색은 어떻게 선택하신 것인가요?

김영섭 요즘은 저는 '색감의 회복'이라는 명제를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색에 대하여 아주 풍부하고, 또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색구성을 보여주는 조각보 전시회를 보면, 일상생활에 까지도 색을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단청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고려시대는 무척



야외집회장으로 이어지는 외부공간 계단

색이 화려했던 시대였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색을 절제했던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러한 색에 대한 미학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분청사기에서 보듯이 단색 톤이면서도, 오히려 색은 더욱 세련되고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갑자기 그 전통이 끊기게 되고, 우리는 색에 대하여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서구의 색깔, 르꼬르뷔제 등의 건축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빨강 노랑 파랑과도 같은 강렬한 원색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갖고있던 다양하고 은유적인 색깔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가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바라간의 건축을 봤을 때, 색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간이 쓰고있는 주색이라던가 분홍색이라던가 하는, 굉장히 튀는 색들이 결국 그들의 푼토색이더군요. 그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 색깔이고, 그 땅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간에 대한 특별한 이해 없이도 그 색에 대한 이해가 쉽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에게 '색감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서구의 영향으로 우리는 공간이나 매스, 또는 빛과 그림자와 같은 몇가지 기법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을 뿐, 질감이나 색에 대해서는 금기시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금기로부터 좀 해방되어, 우리 선조들의 뛰어났던 색에 대한 감각들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의 프로젝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색을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색을 쓸 때 주변과 조화되면서, 나름대로의 미학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시어들을 생각할 때마다 메모하듯이, 여행을 하면서 보는 색들을 기억해두곤 합니다. 이 색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실험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쓰고 있는 색들이 충분히 한국적인 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색에 대한 컴플렉스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서는 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쓰인 색들은 주로 자연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은 건물의 주조색을 뒤의 검은 숲과 일탈되는 흰 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연과 만나는 부분의 색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곡면지붕에 사용된 어두운 올리브 색은, 뒤편 숲의 어두운 색을 한 단계 죽여서 흰 색에 정착시키려는 의도이지요. 앞쪽의 녹색 필로티와 그 사이사이에 채워진 통나무도 지면과 만나는 부분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밖의 외부에 쓰인 색들은 자연으로 시선을 유도한다던가, 부분적으로 악센트를 준다던가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한편 내부의 색은 추운 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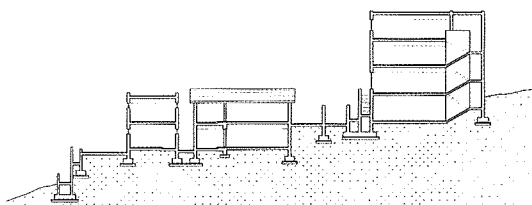
싸게 지은 집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게하기를 바랐습니다. 중간색을 많이 썼는데, 좋은 색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계몽주의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엘로우보다는 차치색을 내려고 애썼지요.

송인호 _____ 건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후배 건축가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영섭 _____ 우리 한국의 건축가 교육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물은 이 땅 어디엔가 꼭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세워야하는 것은 현실이고, 건축은 현실을 구현하는 것이지요. 건축가는 현실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어휘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축가를 볼 때, 조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건축가는 이른바 전문가인데,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의 물성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질감과 구법, 그리고 재료가 말하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건축가는 끊임없이 이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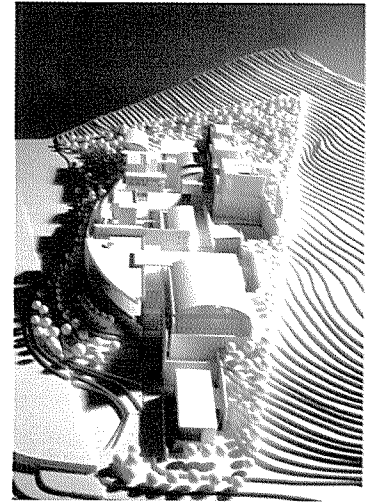
그런데 건축학도들은 요즈음 모형을 만드는 재료가 흰색이어서 그런지, 공간과 덩어리에 대한 대조라던가, 빛과 그림자의 대조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피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요. 골격과 핏줄이 드러날 때 인간은 결코 아름답지 않지요. 건축도 마찬가지로 표피가 구조와 공간, 동선을 감싸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의 표피를 이루는 재료들의 가공방법이나 경제성 등, 그 재료의 물성에 대하여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나치게 공간구성과 같은 개념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재료의 스케일이나 만남의 문제, 질감 등과 같은 실용적인 것이지요. 저 스스로도 플랜만 남아있고 실체는 사라져버린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작업합니다.

그리고 건축가에게는 독서량이 매우 중요하다



중단면도

고 생각합니다. 단지 책임기 뿐 아니라 여행이나 모든 만남에 대한 여러가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대학시절 화장실에 갈 때, 고급 호텔에서 불일을 보곤 했습니다. 용변을 보면서 그 고급재료며 마감디테일과, 비례와 스케일을 들여다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잡스럽게 이런 저런 정보를 다양하게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형

건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호기심, 인간에 대한 연구가 어떤 건축형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작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쥐어짜내듯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일을 한다 말이지요. 아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안에 살 사람들이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건축적인 언어로 계속 환원시키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들을 잘 쓸 수 있는 문장력만 있으면 무척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나의 삶에 대한 태도, 자연에 대한 태도이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향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앞의 이야기가 실무적인 이야기라면, 뒤 이야기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이겠지요.

송인호 _____ 생활하면서 항상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작업을 하면서 물성에 주목하라는 교훈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의 건축은 얼핏 어디에서 본 듯하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는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양한 건축어휘와 구성방법, 그리고 장면들로 구성된 입체적인 풀리주와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숨겨 놓고, 그리고 입체와 장면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과정에 그가 가진 건축가로서의 능력이 드러난다. 일상적인 단어들에 담긴 호기심과 은유, 한 편의 소설을 읽는 재미와 감동에 견줄 만하다.